

북스

어린이 책꽂이



▲대단한 4학년= '별 볼 일 없는 4학년'을 잇는 주디 블룸의 또 다른 장편 동화. 무심치 않은 척, 잘하는 척하는 독특한 캐릭터의 여자아이 '윌라 탭만'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기발한 상상력을 가진 윌라가 날마다 잔머리를 굴리는 행동이 상상을 초월하며 끊임없이 폭소를 자아낸다. (창비·8천500원)



▲꿀벌 마야의 모험= '네버랜드 클래식' 시리즈 제38권. 발데마르 본젠스의 1912년 작으로 독일 아동문학의 고전으로 손꼽힌다. 호기심 많은 어린 꿀벌 마야가 틀에 박힌 일벌의 삶을 거부하고 고향을 떠나 호수 와 숲 등을 여행하며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작품이다. 또 매뚜기, 거미 등 여러 곤충들도 등장한다. (시공주니어·1만원)



▲큰고추 작은고추= 초등학교 교과서 일하며 학교생활을 바탕으로 동화와 소설을 써온 하이타니 겐지로가 교사 시절 경험했던 아이들과 어른,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쓴 8편의 동화를 엮은 동화집이다. 책 중간 중간 나오는 아이들의 시는 저자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쓴 것이다. (양철북·8천원)



▲너도 부자가 되고 싶니?= 소문난 부자들이 들려주는 20가지 성공공법을 담았다. 그렇다고 '부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앤드류 카네기, 잭 웰치 등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좋은 습관과 가치관을 이야기를 통해 '진짜 부자'가 되는 법을 들려준다. (거인·8천원)



▲너랑 놀아 줄게= 가정 환경이 서로 다른 진성이와 연지의 '사랑, 차이, 이해, 화해'에 대한 이야기.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처음 만난 가난한 아이 진성이와 부자집에서 공부하는 자란 연지는 애증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깨우쳐간다. (앵&앵·8천500원)



▲말구미와 친구들= '스코르타의 태양'으로 2004년 공쿠르상을 수상한 작가 로망 고데의 첫 동화책이다. 말구미가 사는 나라에서는 길가의 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나무가 꽃물을 흘리며 개구리들이 제재기를 한다. 흐린 날 씨라고는 본 적이 없는 주인공들은 구름을 무찌르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 (아이들만·9천800원)



▲고추장 담그는 아버지= 역사 사료에서 찾아낸 '옛날 실화' 10편을 이야기로 엮었다. 고추장을 직접 담그고 아들에게 보낸 연암 박지원과 그런 아버지를 기록한 아들 박종채, 외로움을 품고 평생 가장 가까운 친구로 지낸 정약용과 정약전 형제 등 선인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책과함께어린이·9천500원)

▲길로 내가 간다= 유아동시인 노길자씨의 동시집이다. '꽃가루 신발' '천둥과 번개' 등 자연이 품고 있는 생명력과 따뜻한 모습을 담은 시 78편을 6부로 나눠 엮었다. 시인은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거리가 필요하고, 사랑하는 어린이는 사랑하는 만큼의 거리를 두고 소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동문예·1만원)

“지배와 억압 합리화... 그리스 신화는 위험”

그리스 귀신 죽이기

박홍규 지음



그리스 로마 신화는 누구나 한번쯤은 보았을 고전 중의 고전이다. 또 서양의 문화와 예술의 지평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으로 인식돼 열광적으로 읽힌 책이기도 하다.

그러나 '소크라테스 두 번 죽이기', '플라톤 다시 보기' 등 그리스 문화와 사상에 대한 책을 썼던 박홍규 영남대 법대 교수는 '그리스 귀신 죽이기'에서 그리스 신화는 청소년에게 읽히기에는 너무 '위험한' 이야기라고 경계한다. 그리스 신화가 서양 문화의 근간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문제는 그리스 신화에 뿌리를 둔 서양식 사고가 지배와 억압, 착취와 파멸을 합리화하고 '폭력성'에 치우쳐 있다는 것. 저자는 먼저 지금 널리 읽히는 그리스 신화는 선사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신화 그대로가 아니라 농업 중심의 평화적 문명이었던 크레타문명에서 상업 중심의 전투적 문명인 미케네 문명으로 바뀐 이후에 자리 잡은 신화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

러다 보니 투쟁적, 거부적, 오라적 성격이 예전에 전해 내려온 이야기보다 더욱 강해졌다는 것이다. 그리스 신화 전반에 뿌리내린 차별구조도 문제 삼는다. 특히 저자는 신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져, 저 여성을 범하는 제우스를 '상상강간범'이라고 부르며 맹렬히 비판한다. 또 제우스는 '권력자의 전횡'이다. 귀족적인 유산계급일 뿐 아니라 때때로 여성의 뛰어난 재능을 능가하지 못한 전지전능한 신이다. 티탄족을 상대로 제우스가 벌인 싸움은 '이민족'을 물리치는 '선주인'의 모습을 상징한다. 저자는 이런 그리스 신화에서 '오리엔탈리즘'이 이미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거침없이 '귀신'이라고 부르는 저자는 신화 속에서 악과 추를 대변하는 괴상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괴물'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괴물'은 선악과 미추의 관점으로 지배자, 남성, 서양이라는 주체(主體)와 피지배자, 여성, 비(非)서양이라는 타자(他者)를 가른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그리스 신화에서 그토록 많은 괴물이 등장하는 것은 "그리스인들이 무서워한 외부 세계의 자연과 외적, 미지의 세상, 내부세계의 적인 이단자, 여성을 포함한 피지배자 인간을 모두 괴물로 표상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저자는 "신화란 경쟁과 폭력이 난무하는 혼란



산드로 보티첼리의 '아프로디테의 탄생'(1486년 작·피렌체 우피치미술관 소장).

스런 현대의 가치들을 넘어서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어쩌서 오늘날 한국인들이 평화적이고 인간적인 단군신화보다 폭력적인 그리스 신화에 더 관심을 보이는지 묻는다. 그러면서 그리스 신화를 향한 '숭배'는 정신적 제국주의가 아니겠느냐"고 꼬집는다. 이와 함께 저자는 "현대세계의 추세가 경쟁과 폭력이 아닌 화합과 평화의 세계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그리스 귀신을 숭배해서는 안된

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기존의 그리스 신화를 '뒤집어 보'는 과격적인 주장만 일방적이고 이분법적인 면이 없지 않다. 마치 끊임없는 투쟁, 불탄, 출생의 비밀, 불치병이 관치는 요즘 한국에 유행하는 막장 텔레비전 드라마를 비판하면서 그 대대성과 예술성을 폄하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생각의 나무·1만2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사회적 존재 정체성과 본질

아주 잠깐

신덕룡 지음



2006년 '소리의 감옥'을 내며 시인으로 입지를 굳힌 신덕룡(53·광주대 문예창작과 교수)씨가 최근 그리스 두 번째 시집 '아주 잠깐'을 출간했다. 신 시인은 시적 삶이 자기 무화를 통한 선결과 함께 자타불위의 전일적인 세계관을 추구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아주 잠깐-원당일기 14'를 비롯해 존재의 문제를 불교적 상상력으로 형상화한 60여 편의 시를 4부로 나눠 엮었다. 신 시인은 특히 삶과 죽음, 고통과 환희, 결핍과 충만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총체라는 발견의 시학을 각각의 작품을 통해 다채롭게 개진했다. 문학평론가 홍우희씨는 "신덕룡의 시 세계는 개별적 실존은 물론 사회적 존재와의 정체성과 본질을 만나게 해주고 아울러 이를 긍정하고 포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여 준다"고 평했다. 신 시인은 지난 1985년 '현대문학'에 평론으로 등단했으며 2002년 '시와 시학'으로 재등단했다. '환경위기와 생태학적 상상력' '생명시학의 진제' 등의 책을 냈으며 1998년에는 김달진문학상을 수상했다. (서정시학·9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역사 인물 57명 삶과 죽음 고찰

내면 기행

심경호 지음



옛 사람들은 죽음에 대처하면서 삶의 의미를 생각했다. 인생의 어느 순간 죽음을 의식하고 이제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쓴 묘비명은 인간의 내면을 가장 진실하게 드러낸다. 고려시대 충신 김원부부터 일제강점기 독립지사 이건승까지 역사 속 인물 57명의 묘비명과 그들의 삶을 살핀 고려대 심경호 교수의 '내면 기행'은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그들이 삶과 죽음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총체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간 흥미로운 책이다. '한시기행' '산문기행'에 이은 저자의 '기행' 3부작 중 마지막인 책인 셈이다. 우리 옛 선인들의 글을 가려 뽑은 방식은 전작과 같지만 이번엔 문학작품이 아니라 생전에 스스로 쓴 '묘비명'을 골랐다. 저자는 묘비명만 아니라 무덤 앞에 세우는 꽃돌에 쓰인 묘표(墓表), 무덤 옆에 묻는 묘지(墓誌)에 쓰인 글과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도한 만시(挽詩) 등 자신의 생애를 정리한 글을 가리지 않고 포함했다. 책에 따르면 선인들은 죽음에 접하면서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자신의 본래성을 추구했다. 웰다잉 프로그램의 하나로 묘비명을 써 보는 현대인들이 늘어나는 요즘, 옛 선인들의 묘비에서 성찰과 지혜를 찾아볼 일이다. (이기사·2만3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숨겨진 나, 들여다 보기

프로이트의 의자...

정도연 지음



최근 심리학 서적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초의 국제정신분석가인 정도연(서울대 의대 교수)씨가 '프로이트의 의자-숨겨진 나와 마주하는 정신 분석 이야기'를 펴냈다. 책은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첫번째 장 '숨겨진 나를 들여다 보기'에서는 어떤 욕망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지, 내 마음은 어떻게 생겼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무의식의 상처 이해하기'에서는 불안, 공포, 우울, 분노, 좌절, 망설임, 열등감, 시기심, 질투 등 인간이 갖고 있는 요소들의 본질을 분석하고, 흔히 좋지 않은 감정이라고 여겨지는 이런 것들이 어떤 긍정적 작용을 하는지 설명해준다. 결론에서 그가 제시하는 자유방임은 다섯가지. '자신의 언어로 말하기', '스스로에게까지 거짓말하지 말자', '용서 받으려 애쓰지 마라', '꿈과 환상을 잘 이용하자', '나의 현재 시간이 빛사인지 확인하자' 등이다. 책 마지막에는 알프레트 브통의 '불안', 베르나 카스트의 '나를 창조하는 컴플렉스', 베르베 바르테츠키의 '따귀 맞은 영혼' 등 읽을 만한 심리학 관련 서적들을 소개한다. (웅진지식하우스·1만2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정심 正視 正行' (Jeongsim) featuring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services including business registration, tax planning, and legal consultation.

Advertisement for '다사랑(유통)' (Dasarang) featuring solar panel installation and sales services, including contact numbers and a list of products.

Advertisement for '태양광발전소 및 사업인수' (Solar Power Plant and Business Acquisition) featuring '해의 땅' (Sea of Sun) and contact information for business acquisition.

Advertisement for '(주)국민법률경매' (KMB) featuring a detailed table of legal auction results across various districts, including item descriptions, prices, and agent information.